

# 이재명 “시·도당 튼튼해야재집권”...전국 정당화 강조

###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영남·충청·강원 언급 편차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재집권 토대를 구축하려면 시·도당이 튼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의 당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 대표는 20일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당원 중심의 정당, 국민 속의 정당, 그리고 민주적 기초가 잘 가꿔진 그런 정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재집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당도 잘해야 하겠지만 핵심은 각 시·도당”이라며 “각 지역 위원회가 국민과 현장 속에 뿌리박고 국민 요구, 당원 요구를 잘 받아 안아 정말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정치 조직으로 인정받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또 “그 중심에 계신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국민과 당원 기대가 크다”며 “과거와

완전히 다른 민주당으로, 시·도당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시·도당 중 사정이 어려운 지역, 나은 지역이 있는데 그 편차가 정말 크다”며 “특히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충청, 강원 이런 지역에선 정당 조직 생존 자체가 가능한가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당 동지들이 충분히 배려해 주길 바란다”며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히 어려운 지역의 민주당 뿌리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 키울 것이냐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이다. 회의에선 당원 정비 보고와 방향성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국위원회급 위원장 선출 관련 내용과 시·

도당 활동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임오경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정비 보고 방향은 현재 전국 당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에 대해 말이 많이 있었다”며 “전국위급 위원장 선출 과정과 관련해선 간단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 활동계획 보고는 격식을 버리고 자유롭게 위원장 토론을 당 대표가 주관해 줘서 자유롭게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시·도당을 말하고 취약 지역 편차를 줄이자는 취지 언급을 했다고 한다.

지역 시·도당 위원장들의 애로 청취도 이뤄졌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자주 방문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와 당비 배분에 있어 취약 지역 지원을 좀 더 해달라는 요구 등이 있었다고 임 대변인은 전했다.

발언권은 취약 지역 위원장들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고 한다. 전 당원 정보 업데이트를 통한 당원 데이터베이스(DB) 단계적 정비, 민주연구원의 시·도당 지원 연계 등 내용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2차 연석회의의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다. 전국위원회급 위원장 선출 관련 일정은 현재 정해진 상태라고 임 대변인은 부연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조직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원 교육을 강조

하고 식사 정치를 재개하는 등 소통, 통합을 매개로 한 체제 공고화 시도 중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이슬 기자

# 민주 “尹, 英 여왕 조문 빼먹는 모습에 국민들 왜 갔나 의문”

### 김성환 “교통통제 몰랐다면 무능한 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우크라이나도 모두 조문을 했는데 왜 윤 대통령만 조문을 못 했는지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대에 교통통제가 사전 예고돼 있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운송통제를 신고 걸어서 조문을 했다”라며 “교통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외교 실책, 외교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 국민은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기사를 내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서거 당일부터 여왕 이름을 오타를 내고 조문을 빼먹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왜 영국에 갔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여전히 민손외교를 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제라도 국익의 관점에서 상당한 외교를 해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아님을 증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 한숙경 도의원, 지역민의 삶과 정신 깃든 지역어 연구·보전 강조

###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어 소멸 대응 필요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숙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어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민의 삶과 정신이 깃들여 있는 지역어에 대한 연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어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소중한 자원이지만, 지역구분 없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표준어 사용 강조로 인해 우

리의 정겨운 토착 언어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위한 사업이 신설되어 도민들의 지역어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숙경 의원은 “지역어는 표준어로는 불가능한 친근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며, 해당 언어 권역의 전통과 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지역어 보존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남도에서도 지역어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